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6호 【루계 제25555호】 주체106(2017)년 2월 15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주체의 태양을 우러르는 만민의 영원한 칭송, 인류지성의 최고정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의 1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각계 인사들이 수많은 선물과 훈장, 메달, 명예칭호와 상장들을 드리였다

불세출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광명성절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만민을 따뜻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과 연고자들, 인민들은 인류공동의 리상인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우러르면서 열화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세계 1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개별적인사들이 4만여점의 선물과 380여개의 훈장, 메달, 명예칭호들을 드리였다.

인류지성의 최고정화인 태양민족의 만년재보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높은 국제적권위와 뛰어난 정치실력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로,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세계정치의 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인민들이 드린 선물들은 담고있는 사상과 내용의 심오성, 종류와 형식, 진귀함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다.

세계 17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 및 지역기구 인사들이 마련한 선물들에는 반제반미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꾸바의 국가지도자들이 드린 악어가죽가방, 자동보총, 대리석탁상등, 인두화 《몬까다병영습격》과 로씨야국가수반들이 올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룔로브윈종말들과 사냥총, 단검,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 중국 당 및 국가지도자들이 세대를 이어 보내여온 자개박이옻칠벽걸이, 대형황면수예 《보춘도》, 세직화 《송령학수》, 옻칠병풍 《청명상하도》 등이 있다.

또한 절세의 위인께서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쁠럭불가담운동 창시자의 한사람인 전 유고슬라비아대통령 찌또가 드린 금손목시계,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마련하여 보내여온 디마스끄장검을 비롯하여 전 라오스국가주석 쏨말리 싸이냐쏜, 콩고대통령 데니 싸쑤 느궤쏘, 중앙아프리카대통령이였던 앙드레 꼴링바, 토고대통령이였던 그나씽그베 에야데마가 올린 선물들도 있다.

캄보쟈의 대왕이였던 노로돔 시하누크는 정의의 위업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1973년에 처음으로 두 나라 기발이 새겨진 금속공예품 등을 드린 때로부터 70여점에 달하는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한 이딸리아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수백점에 달하는 선물을 드리였으며 수리아의 한 인사는 600년동안 가보로 물려오던 유물을 포함하여 10여년간에 걸쳐 수많은 선물을 보내여왔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장울화, 주보중, 풍중운, 상월, 호진일, 채세영을 비롯한 중국의 항일혁명렬사,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은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는것을 전통화하고 가풍으로 이어왔다.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 전 미국무장관 알브라이트, 전 일본수상 고이즈미를 비롯한 미국, 일본의 고위인사들도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의 특출한 정치실력과 고매한 풍모에 매혹되여 삼가 선물을 올리였다.

시대와 인류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 개별적인사들이 180개의 훈장과 메달을 수여해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에짚트의 공화국목걸이훈장, 라오스의 찌얀떼훈장, 캄보쟈의 캄보쟈왕국대십자훈장, 팔레스티나의 성스러운 쿠드스별훈장, 적도기네의 대독립훈장, 기네의 민족공로대십자훈장, 꾸바의 헌대성훈장, 로씨야의 10월혁명훈장들과 위대한 조국전쟁승리 60돐기념메달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국가지도자들과 정부, 국회들, 국제기구, 단체들에서 수여해드린 많은 훈장과 메달들을 받으시였다.

또한 나미비아에서 최고훈장인 웰위치아 미라빌리스훈장 제1급을, 세네갈에서 최고훈장인 민족대십자훈장, 마쟈르로동당에서 당의 첫 명예금마크를, 프랑스사업련신협회에서 금메달과 명예증서를 수여해드린것을 비롯하여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이께 최상급의 훈장들과 금메달, 기념메달, 친선메달 등을 올리였다.

지중해연안의 50여개 정당들을 망라하고있는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환희로 들끓던 력사적인 시기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빛내이신 그이께 최고훈장인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의 훈장 제1급을 수여해드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 및 당수들과 정당들 그리고 세계의 권위있는 과학원, 대학, 국제기구, 단체들, 많은 도시들에서 올린 연 200여차례의 명예칭호를 받으시였다.

1994년 9월 페난혁명당이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한 때로부터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코스따 리까인민당, 그레네이더 모리스 비숍프에국운동, 《태양의 평화》국제위원회, 페히꼬의 뿌에블라기자련맹을 비롯하여 여러 정당, 조직들에서 명예지도자, 명예위원장으로 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로씨야련방 안전, 국방 및 법질서문제과학원에서 정성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원사칭호를 수여해드리였으며 베네수엘라 아깜부종합대학, 미국 켄징톤종합대학, 뻬루 짤라오국립종합대학 등에서도 철학, 정치학, 경제학, 국제관계학, 교육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명예원사, 교수, 박사칭호들을 드리였다.

1987년 4월 마다가스까르 또아마시나시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한 이후 수리아, 우간다, 가이아나, 메히꼬,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명예시민증서와 시열쇠를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이후에도 사상과 령도, 덕망에서 위인중의 위인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국제준비위원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0돐을 인류사적인 대경사로 맞이하게 되는 환희와 영생축원의 마음을 담아 태양의 빛발을 배경으로 세계지도를 형상한 화원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을 모신 유화 《선군태양 김정일장군》을 드리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였던 비슈와나스는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인민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절세의 위인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담아 우아하고 정교한 금도금목칠이를 올리였다.

에꽈도르 볼리바르주 빌로반군 장관 렐로 비떼르보는 동공에 《적도로시탑》을 올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탁월한 선군정치로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인디아사회주의적단결중심당(공산주의), 일본신사회당,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로씨야 이고리 모이세예브명칭 국립아까데미아민속무용단,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총재 등 세계 여러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이 올린 선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뻬루사회주의정치행동당, 뻬루공산당, 방글라데슈자리야당,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방글라데슈인민련맹, 방글라데슈공산당(맑스-레닌주의)에서 상장과 업적증서를 드리였다.

베닌사회주의당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교육재단에서는 인류자주위업수행에 공헌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자기 당과 단위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모신데 대하여 내외에 천명하였다.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와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천출명장께 나이제리아 잠파라주 구싸우시와 요베주 다마뚜루시에서 명예시민칭호를 수여해드리였으며 에꽈도르의 여러 도시들에서도 세계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시민으로 모시였다.

벌가리아반파쑈동맹에서 수여해드린 반파쑈운동명예활동가칭호와 국제반제조정위원회, 아프리카평화기금,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등에서 드린 축기, 평화상, 상장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각계층 인사들과 진보적인민들이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인류의 영재, 세계정치원로로 끝없이 신뢰하며 받들어모시고있는 이러한 사실은 동서고금의 그 어느 시기,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인류력사에 가장 숭고한 도덕과 의리의 세계를 전하는 력사에 전무후무한 위인칭송의 숭엄한 화폭은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업적과 높으신 덕망으로 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세계가 우러러받는 천출위인을 수령으로 모신 주체조선의 크나큰 행운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4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상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만민칭송의 명화, 영원불멸할 태양의 꽃축전

제21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탄생 75돐경축 제21차 김정일화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만민의 순결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펼쳐지는 위인칭송의 꽃축전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태양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와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는 충정의 대축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축전은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과 세계인민들의 열화같은 경모의 정을 더욱 분출시키고 있다.

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부강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세계가 축전장에 펼쳐졌다.

축전이 진행될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21차 김정일화축전》, 《경축》, 《75돐》이라는 글발이 나붙어있었다.

또한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세워져있었으며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여있었다.

태양칭송의 꽃바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에는 주체조선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무궁번영하는 김정은시대를 축복하여 붉게 피어난 김정일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80여개 단위와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수만상의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였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인사들, 화교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린 위인칭송의 꽃들이 축전장에 전시되였다.

축전개막식이 14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리룡남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군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 동포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개막식은 시작되였다.

개막사를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시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21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정일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한결같은 칭송과 흠모심에 떠받들려 피어난 때로부터 인류의 마음을 완전히 매혹시키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는 김정일화축전과 함께 전국각지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불멸의 꽃전시회가 열리여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위인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굽이쳐흐르게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불멸의 꽃 축전가》가 주악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아름답게 피어난 김정일화들과 진귀한 화초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무함마두 부하리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국제김정일상리사회 결정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7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정일각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고 세계자주화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걸출한 위인이시다.

국제김정일상리사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오가미 겡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에게 국제김정일상을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국제김정일상리사회

2017년 2월 14일 뉴델리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광명성절경축 프랑스준비위원회가 1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프랑스조선친선협회 위원장 기 듀프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벨지끄준비위원회가 1월 28일 브류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벨지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조제프 보쭈위트와 서기장 엔 구쎈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이딸리아준비위원회가 4일 밀라노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밀라노주체사상연구쎈터 책임자 크리스띠안 베베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인터네트홈페지를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업적토론회, 독보회 등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 우간다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월 30일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우간다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간다인민방위군 총정치위원인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헨리 마씨교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을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국주의렬강들의 책동에 맞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경제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은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본보기로 된다고 찬양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업적토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30일 로씨야의 전로로병사회단체 《전투적우의》 연해변강지부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부위원장 도네츠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백두산장군송가와 더불어 태양조선 무궁번영하리라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20년 력사를 돌이켜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첫 송가인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가 태여난 1971년부터 장군님 생애의 마지막시기의 유명한 송가 《조선의 힘》이 창작된 2011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송가의 력사는 장장 40년을 헤아린다. 피눈물의 해 2011년이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인민의 송가는 여전히 줄기차게 창작되고있다. 세계의 그 어느 위인의 한생에서도 이렇듯 장구한 송가력사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다.

헤아릴수없이 무수한 그 송가명곡들가운데서도 우리 인민은 물론이고 온 세계가 공인하는 최고대표작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는 올해 2017년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창작된지 2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20년이 아니라 마치도 200년이 흐른것같이 여겨지는 위대한 력사에 대한 긍지높은 회고는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지금껏 그토록 사랑하며 즐겨 불러온 영생불멸의 혁명송가의 진가와 그 신비로운 힘에 대하여, 이 한편의 노래가 조국과 혁명의 운명에서 차지하는 특출한 지위와 거대한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해주고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제목그대로 장군송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하많은 송가들가운데서 왜 장군송가가 제일가는 대표작으로 되였는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자 곧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큰 공적이 과연 무엇이며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조국과 민족의 어제와 오늘뿐아니라 후손만대의 장래에 있어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또한 이 나라 인민이 오늘까지도 친근하고 정답게 부르고있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호칭에 담겨진 생활의 진리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험난한 길을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우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습니다.》

력사의 눈으로 볼 때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동서고금의 그 어떤 위인송가, 영웅찬가들에 없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가가 생사존망의 시련을 겪던 최악의 시기에 태여난 극적인 수령송가라는것이며 전쟁시기도 아닌 평화시기의 령도자에게 인민이 드린 특이한 장군송가라는것이다. 또한 창작당대보다 이후의 력사로 하여 그 진가가 더욱 두드러지고 그 심원한 음악세계가 더 위대해진 위인송가라는것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1997년에 창작되였다. 그때는 우리 조국이 전대미문의 엄혹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뜻밖에 잃은 민족의 대국상후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제도의 련이은 붕괴와 함께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정치군사적압력과 전쟁도발책동, 경제적봉쇄,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 조국의 안전과 경제건설, 사회주의의 운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붕괴될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바로 그 3년후인 1997년에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태여났다. 고난의 행군체험자들이 지금도 가슴아프게 추억하는 1997년은 나라의 경제형편과 인민생활이 최악의 역경에 처해있던 참으로 준엄한 해였다.

원래 수령송가는 수령의 위대한 업적이 값높이 평가총화되고 그 생활력에 대한 경탄과 매혹의 폭발로 환희롭게 태여나는 법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와 함께 자본주의가 복귀되고 국가지도자들이 하루아침사이에 제거되던 비극적인 시기에 조선에서 태여난 수령송가는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마치도 눈보라폭풍속에서 불쑥 솟구쳐오른 태양과도 같은 신비한 노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양상은 매우 환희롭고 장중하다. 우리 당과 인민이 결단코 단행한 고난의 행군의 진의도를 똑똑히 모르는 사람들, 조선의 혁명가들이 주장하는 참다운 명곡에 대한 철학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현실과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출현이 모순적인것이 아닌가고 생각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전인민적감정의 기본흐름과 송가의 음악세계와의 완벽한 일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쏘련인민의 승리를 론할 때면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유명한 전시가요 《정의의 싸움》이 당당히 부각되군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신들을 고난의 행군의 긍지높은 승리자로 되게 한 정신력의 원천을 추억할 때마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떠받들어올린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한편의 송가음악작품이기 전에 모진 시련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신념을 굳건히 버티여준 정신적기둥이였고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억척같이 다져준 무비의 힘이였으며 최후의 승리를 락관하게 한 희망의 기치였다. 그것은 다름아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력사의 난국을 앞장에서 뚫고나가시는 위대한 장군, 그 이름만 한번 빛발쳐도 원쑤들이 전률하는 강철의 명장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이였다.

고난의 행군의 가장 준엄하고 가렬처절한 3년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세월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오면서도 다는 몰랐던 그이의 가장 특출하고 비범한 위인상에 대하여 뼈속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만큼 원쑤들에 대한 그이의 타격은 무자비하였으며 조국의 운명을 생각하시는 책임감의 크기만큼 그이의 용단은 단호했고 헌신과 희생은 그야말로 초인간적이였다.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드시고 우리 장군님 앞장에서 찍으신 피어린 자욱자욱을 따라 인민이 산악같이 일떠섰고 조국이 한걸음한걸음 전진했다. 허기져 쓰러졌다가도 장군님 그리움에 강잉히 일떠서고 발전소건설장의 언제우로 흙마대를 메고 한치한치 오르면서도 장군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절절한 마음,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장군님 만세를 부르는 열렬한 심장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환희로운 수령송가를 낳았다. 인민이 지어부른 그이에 대한 모든 송가의 명가사, 명선률들이 합쳐지고 피절은 3년 체험의 전인민적사상감정이 폭발하면서 드디여 희한한 송가명곡이 태여났다.

송가의 가사에도 있듯이 우리 인민은 《태양의 위업 빛내신 인민의 령도자》를 굳게 믿었고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가 계시여 반드시 락원의 길이 열리리라는것을 확신하였으며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와 생사운명을 함께 할 맹세를 다졌다. 힘겨울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고 피로울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다. 최후의 순간에도 이 영생불멸의 송가를 부르면 고난의 행군이 승리하는 그날이 눈앞에 보였다.

제국주의와 맞서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를 지키시는 희세의 선군명장에 대한 노래는 그이의 명성과 더불어 온 세상에 급속히 전파되였으며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백절불굴의 사회주의조선의 상징으로 공인되였다. 이 세계적인 명곡은 미국의 뉴욕에서까지 관현악으로 장중하게 울려퍼져 세상을 뒤흔들었다.

한개 국가의 몰락은 실제적으로 인민의 사상정신적붕괴로부터 시작되며 그 붕괴는 자기의 리념과 희망의 상징인 령도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출발한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이 나라 인민이 가장 어려울 때 제일 필요하고 귀중한것을 안겨주었다. 이 혁명송가를 두고 조선혁명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예술작품이라고도 일컫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수천만t의 식량이나 수백만자루의 무기도 대신할수 없는 명작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탄생, 그것은 력사의 필연이였고 혁명의 법칙이였으며 인민의 생명 그자체의 요구였다.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의 판가리결전장에서 조선의 심장에 위대한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준 전설적인 혁명송가를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1997년 4월 9일 당보 《로동신문》에 처음으로 공개되였다. 그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4돐이 되는 뜻깊은 기념일이였다.

장군송가는 전장에서의 특출한 무공을 칭송하여 명장에게 바쳐지는 노래이다. 어이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한생의 업적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음악선물로 장군송가를 삼가 드렸던가.

세계에는 외교관형의 국가지도자도 있고 경제가형의 대통령도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렬강들의 각축전장에서 약소민족의 설음의 피눈물을 많이도 흘려온 우리 인민은 조선을 이끌 령도자가 다름아닌 위대한 장군이기를 소원했다. 그 열망의 폭발로 이 나라에 태여난 첫 장군송가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모신 민족적영웅에 대한 장군송가가 태여나던 때의 환희, 그 불멸의 송가를 목청껏 부르며 조선사람의 자부심을 가슴벅차게 느끼던 영광의 세월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의 항시적인 첨예한 대결속에서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생활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인민은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이 있어야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도 있으며 이 조선에는 꼭 위대한 장군이 계셔야 한다는 진리를 생활의 체험으로 심장에 새겼다.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김정일장군》이라고 높이 칭송하며 부른 노래는 그이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1993년에 창작된 노래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였다. 제목그대로 김정일장군님과 조선의 승리를 하나의 운명체의 형상으로 가슴후련하게 노래한 이 국보적인 명곡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오래전부터 끓어번지고있던 민심의 분출이였다.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신뢰와 존경은 그이의 정치와 그 생활력에 대한 공감과 매혹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에 우리 인민은 열백번도 더 전쟁의 참화를 겪었을 이 땅에서 왜 단 한번도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는지, 비록 허리띠를 조이며 유족한 생활을 누리지는 못해도 《내 나라의 푸른 하늘》노래를 즐겁게 부르는 기쁨이 얼마나 큰것인지 똑똑히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덕이며 피어린 선군길에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과 희생의 덕이였다.

전쟁을 이긴 명장의 공적이 아무리 크다한들 전쟁을 막아낸 명장의 업적에 비할수는 없다.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군장정의 자욱자욱은 그야말로 피덩어리같은 글자가 되여 《김정일장군의 노래》라는 혁명송가의 훌륭한 제목을 낳았다. 선군정치 만세는 곧 김정일장군 만세였고 그것이 그대로 음악화된것이 《김정일장군의 노래》였다.

김정일장군, 이 부름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한생의 가장 비범한 특징에 대한 총화이기도 하였다. 빨찌산의 밀영에서 태여나 유년시절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 두차례의 대전을 혁명의 사령부에서 보내신분, 혁명령도의 전기간 제국주의와 맞서 총포성없는 전쟁을 쉴없이 치르신분, 직업적인 군인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한평생을 야전생활로 이어가신분에게 가장 친근한 호칭으로 장군의 호칭을, 가장 훌륭한 송가선물로 장군송가를 삼가 드림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이미 백두산에서 광명성이 찬란히 솟아오른 그 시기에 어리신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우리 장군》이시라고 불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전에 자신께서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이렇듯 민족의 반만년 숙망, 선군조선의 첫 세대 혁명가들의 념원까지 담긴 참으로 거창한 력사적 무게가 실려있다.

고난의 행군승리의 기념비는 따로 없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자체가 고난의 행군력사의 메아리로 후손만대를 가르치는 기념비이다. 시대를 뛰여넘어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위대한 명작의 가치를 과연 무엇으로 계산할수 있단 말인가.

조선과 백두산장군은 하나의 운명, 하나의 생명체라는 좌우명을 반만년민족사에 금문자로 새겨놓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야말로 성산 백두산처럼 민족의 운명에 있어서 그 존재와 가치가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정신문화재보이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태여난지 어느덧 20년세월이 흘렀다. 그 20년에 우리 조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수백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할 위대한 전변을 이룩하였다.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며 손으로 기대를 돌리던 1997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CNC기계, 록색형거리, 우주강국, 핵강국, 만리마시대라는 말들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례사롭게 울리고있다. 내 조국에 기적같은 창조물이 생겨날 때마다 고난의 행군체험자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보시였더라면…》 하고 조용히 눈물짓군 한다. 위성발사와 핵시험의 대성공앞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물고기폭포가 쏟아지고 새 거리와 새 공장이 완공될 때마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뜨거운 충정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있다. 조선의 새 기적, 새 신화를 경축할 때마다 병사들도 인민들도 아이들도 누구나 목메여 부르는 노래가 있다.

참으로 훌륭한 명곡은 위대한 시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키고 이끌고나가는 기치적역할을 하기도 한다. 빠리꼼뮨과 더불어 세상에 태여난 로동계급의 첫 혁명가요 《인터나쇼날》은 압제의 세상 뿌리빼고 자주의 새 세계를 세우려는 전세계근로자들의 혁명투쟁의 주제가로 오늘도 울리고있다.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력사적공적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에만 있지 않다. 이 명작은 조선을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강국건설에로 그 운명을 완전히 전환시킨 위대한 혁명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말그대로 영웅적인 작품이다.

고난의 행군은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우리 조국의 력사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운 미증유의 장거였으며 하나의 혁명이였다. 이 민족사적위업을 위한 대용단과 과감무쌍한 실천의 주인공이 바로 전설적영웅 김정일장군님이시였고 그 가렬처절하고 기적적인 투쟁의 주제가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였다.

현실적으로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창작된 다음해인 1998년에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조선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로 날아올랐고 거기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울려나와 세계를 경탄시켰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복구가 아니라 새 조선의 탄생과도 같은 변혁을, 내 조국땅에 전혀 없었던 강국의 새로운 세계와 령역들을 하나하나 피땀으로 개척하고 정복해나갔다.

핵강국의 존엄까지 지닌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고난의 행군을 사회주의강국건설투쟁에로 이행시킨 민족사적위업의 주인공을 노래한 기념비적예술작품의 진가를 가슴뜨거운 감회와 경건한 마음을 안고 음미해보고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에는 고난의 행군의 피절은 자욱자욱에 대한 아무런 표현도 없다. 우리 장군님께서 피눈물을 삼키시며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던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라는 선률의 그 절절한 곡조도 없다.

우리 장군님께서 생전에 앞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을 타승하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을 때 이 투쟁을 령도하신분이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장이였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한 참다운 인간이였다는것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던 가슴뜨거운 교시가 오늘도 인민의 가슴을 울리고있다. 야전렬차에서의 그 가슴아픈 순직을 두고 전장에서의 위대한 전사와 다름없다고 장군님의 희생을 목메여 전하던 2011년의 피눈물의 언덕에서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긴것 없으신 그이와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영결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인간이 할수없었던 일까지도 다하시고도 단 하루의 편한 휴식도, 단 한토막의 시름없는 락도 누리지 못하신 그이, 생의 마지막불꽃까지도 이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에로 더 높이, 더 빨리 이끌어가시는 궤도우에서 다 태우신 그이야말로 전설적명장이시기 전에 참되고 고결한 인간이시였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과 평화, 총대와 음악, 삶과 죽음, 고난과 행복에 대한 가장 위대한 철학이 응결되여있는 인간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장군님의 넋처럼, 숨결처럼 사랑하며 조선의 아들딸로 참되게 사는 법을 심장에 새겨안는것이다.

우리 장군님의 만고의 업적들중에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조국과 사회주의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민족사적숙원인 강국에로의 지름길을 열어주신 애국공적이다. 또한 민족의 아들, 조선의 혁명가로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자신의 영웅적삶으로 가르쳐주신 불멸의 위훈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이 업적을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혁명업적과 나란히 놓고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2대민족가라고 칭하고있는것이다.

* *

우리 후대들이 자자손손 잊지 말아야 할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가장 중요한 민족사적공적이 있다. 《김정일장군의 노래》는 조선의 첫 장군송가인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영원히 울려퍼지도록 떠받들어주고 또 한편의 백두산장군송가가 대를 이어 태여나게 한 위대한 예술작품이다.

백두산장군을 모셔야 조선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법칙이라면 백두산장군송가가 대를 이어 이 땅에 울려퍼져야 민족정신의 피줄기도 영원히 순결하게 이어지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도 천만년 행복하게 부를수 있다는것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후손만대가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생활의 진리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을 모시고 장군님의 강국념원, 민족의 리상과 꿈을 하나하나 꽃피워가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는 새시대의 장군송가 《김정은장군찬가》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발걸음》으로 시작된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에 대한 송가력사는 벌써 인민의 진실하고 열렬한 흠모와 매혹의 마음속에서 눈부신 페지를 아로새기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새 조선을 탄생시키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준 항일혁명선렬들,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사회주의강국에로의 길을 열어제끼고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창작한 선군혁명의 친위전사들의 진정넘친 목소리도 《김정은장군찬가》에 함께 담겨져있다. 대를 이어 울려퍼지는 백두산장군송가를 심장의 약동으로 삼고 태양조선은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리 경 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자

청년학생들의 맹세대회 진행

【평양 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청년학생들의 맹세대회가 14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선군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청년강국》, 《결사옹위》라는 구호판들과 글발들이 세워져있었다.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보고에 이어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로동자 강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최금정, 모란봉구역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최명진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대경사로 끓어번지고있는 시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이하는 청년학생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적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밀림속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위인으로서 지녀야 할 모든 품격과 자질을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조국과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청년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전위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혁명의 홰불봉도 안겨주시며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청년중시정치의 위대한 력사를 펼치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의 청년강국건설업적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고 청년들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답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청년학생들의 열화같은 마음을 담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계승자들의 대부대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우리 청년들을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답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청년학생들이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옹위의 제일결사대, 당의 명령지시라면 불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무조건 관철하는 제일기수가 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오늘의 만리마시대의 본보기정신인 강원도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들마다에서 영웅청년신화를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선군혁명의 척후대이며 조국보위의 주력군인 청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총과 함께 청춘시절을 영웅적위훈으로 빛내이고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나라의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견결한 반제계급적립장을 지니고 적들의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도덕기강을 세우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는데서 청년들이 앞장섬으로써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생활기풍이 더욱 활짝 꽃펴나도록 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5대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모든 조직들을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과 전투력이 강한 조직으로, 정예화된 청년대오로 준비시킬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끝까지 싸워나아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대회는 《우리는 맹세한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청년학생들의 맹세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백두의 칼바람에 넋을 담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언제나 곧바로 폭풍쳐내달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부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억센 기상을 과시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우리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준 혁명의 고향집입니다. 김 정 은

위대한 선군태양 높이 솟아오른 주체혁명의 성지

우리는 지금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 서있다.

조선혁명의 명맥이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하며 주체혁명위업은 백두의 혈통으로 승승장구할것이라는것을 소중히 새겨주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얼마나 위대한 선군태양의 력사가 여기 백두의 성지에서부터 시작되였던가.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질풍같은 억센 진군의 날개를 달아준 이 정다운 고향집을 떠나서 어떻게 조선의 창창한 앞날에 대하여,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랴.

조선혁명가들의 성스러운 목적이며 리상인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과 더불어 위대한 새 력사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군태양 김정일동지,

정녕 태양의 그 존함 부를 때면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남다른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마음은 해솟는 바다마냥 설레이고 태양의 그 영상 우러를 때면 위대한 사랑과 무한한 헌신으로 수놓으신 선군령장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소중히 어려와 눈굽이 뜨겁게 젖어든다.

정일봉기슭의 이 소박한 귀틀집에서부터 시작되였다.

항일전의 잊지 못할 그 사연을 전해주듯 밀림의 푸른 나무가지에 한껏 실린 햇솜같이 하얀 눈, 나무아지들과 소백수바위들에 눈부시게 피여나 반짝이는 서리꽃, 천듯 올린 퇴창너머로 보이는 항일의 초연깃든 배낭이며 방안의 쪽무이포단, 키낮은 책상우의 조선지도맞추기, 나무권총…

력사의 추억이 어려있는 그 하나하나의 뜻깊은 혁명사적물들은 백두산의 아들이신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탄생과 성장에 대하여 백마디, 천마디의 말보다 더 뜨겁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장구한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사에 이렇듯 범상치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위인, 령도자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다. 조선의 미래를 축복하여 이 나라 빨찌산들이 천하명당자리를 고르고골라 백두원시림을 찍어 쌓아올린 밀영의 이 자그마한 귀틀집보다 성스러운 집은 세상에 있어보지 못했다.

항일전쟁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번지는 격전장에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한몸에 안으시고 탄생하신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한평생 조국과 민족, 세계혁명사에 그렇게도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21세기인 오늘도 그처럼 세인의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선군태양으로 누리에 빛을 뿌리고계심을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숭엄히 말해주고있다.

세해전 10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천지를 통채로 뒤흔드는 사나운 눈보라를 맞으시며 백두산의 정점 장군봉에 오르시였다.

너무도 날씨가 차고 눈바람이 세게 불어 혁명전적지답사자들도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있던 때였다.

뜻깊은 그날 백두산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저 멀리 백두산밀영고향집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부터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겪으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시였다고, 장군님께서는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였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로 삼고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

백두산에서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비문의 글발과도 같이 성산의 메부리에 정히 새겨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진정 어버이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앞에, 력사와 인류앞에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 탄생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백두산이 낳은 위대한 아들이시다.

그렇다.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혁명력사는 백두산에서 시작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고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여있는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이다. 이 성스러운 혁명의 고향에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시원이 열리고 조선의 행복과 미래가 시작되였으며 인류의 영원한 봄이 펼쳐졌다.

주체31(1942)년 2월 16일,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정기가 한껏 어린 유서깊은 성지에서 천출위인이 탄생하시여 정일봉의 위엄과 기상이 만리에 굽이친 력사의 그날은 우리 민족이 맞이한 또 하나의 대통운의 날이다.

영광의 그날에 분출되였던 감격을 되새겨주며 백두밀림은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정일봉의 우뢰울어 승리의 수십성상, 소백수 푸른 물이 굽이쳐 흘러 영광과 행복의 년대기로 수놓아진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성스러운 행로를 전해주며 백두산밀영의 2월은 이 나라에 장군복을 안겨주고 장군의 력사가 천년만년 영원히 흐르게 한 백두산대국의 광명성절을 축복하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에 흰눈이 내린다.

백두밀림의 고향집뜨락에 내리는 흰눈,

한평생 백두산을 마음속에 안고 사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를 말해주는 성지의 흰눈이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백두산이 천출위인 위대한 장군님께 처음으로 펼쳐드린것은 다름아닌 백설의 눈부신 은빛세계, 소백수골특유의 장쾌한 설경이 아니였던가.

오래전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귀중한 책갈피속에 추억깊은 이런 내용의 글발을 남기시였다.

나는 눈내리는 아침을 사랑한다.

순식간에 온 천지를 상쾌함과 정갈함으로 덮어버려 하나의 동화적인 신비경으로 만들어놓는 이런 아침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본 황홀경이 은세계였기때문일가, 아니면 억년 녹지 않는 장설에 첫 자욱을 찍었기때문일가, 혹은 우리 조국의 려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였기때문일가.

눈내리는 아침이면 나의 마음이 끝없이 달리는 곳이 있다. 그곳은 조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백두산이다.

지금쯤 아마 백두산은 장설로 뒤덮였을테지. 천고의 밀림, 총포탄이 울부짖던 결전장들도 하얀 눈속에 하루의 시작을 서두르며 새벽을 맞이하고있을테지.

아, 백두산! …

위대한 우리 조국의 지맥과 력사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되였다. 백두산밀영의 고향집뜨락에서부터 우리 조국의 뜨락이 시작되였고 정다운 소백수의 물소리가 이 땅의 수백수천 물줄기들의 웅용한 흐름을 낳았다.

인간에게 자기의 태를 묻은 고향이 있듯이 조국과 민족도 자기의 뿌리가 내린 터전이 있는것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한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여 소중히 여기는 전설적인 성지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백두산밀영고향집처럼 장엄히 굽이치는 력사적과정에 인민의 운명, 나라의 운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줄곧 결정적역할을 하는 그런 위대한 성지가 언제 또 있었던가.

민족이 걸어온 길에 언제나 힘을 주고 조국의 앞길에 밝은 전도를 열어주는 우리의 백두산밀영고향집은 후손만대의 무궁번영을 끝없이 꽃피워주는 희망의 집이다.

태양의 고유한 속성인 빛과 열, 인력은 다른 행성이 대신할수 없다. 마찬가지로 위대한 태양의 위업은 오직 위대한 태양만이 빛내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빛내이신 태양의 위업을 대를 이어 꽃피우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다.

태양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던 그 모습으로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새 전략무기시험발사의 장엄한 불뢰성이 울리도록 하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에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을 마련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뿐이 아닌 온 세계가 숨져가던 조선민족을 구원해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보았고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뵈왔다.

그렇다. 우리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조선이 받들어올린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으며 자주화된 인류의 새봄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으로 우리 조국은 세기의 상상봉에서 보다 찬연히 빛날것이며 우리 인민은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에 더욱 떨칠것이다.

이 불변의 진리를 전하며 백두산마루에 솟은 정일봉하늘가에 태양의 빛발은 찬연하고 조선혁명의 명맥을 이어주고 지켜준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숭엄히 자리잡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준혁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소백수골에 피여난 김정일화

하늘아래 첫 동네 소백수마을에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이 아담하게 자리잡고있다.

온실에서는 백두의 혹한속에서도 김정일화를 아름답게 키워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5돐을 맞는 백두산밀영의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고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앞두고 백두산밀영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소백수마을에서 김정일화가 피여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우리와 만난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일군인 김정남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산밀영고향집앞에 핀 김정일화를 보시고 그토록 만족해하시였다고 하면서 그날의 사연에 대하여 들려주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82(1993)년 8월 19일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하많은 추억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년시절의 추억이 깃든 수수한 귀틀집을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고향집뜨락에 핀 김정일화를 보시고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백두산밀영에 김정일화가 다 피였구만, 꽃이 참 소담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그러시며 고향집마당에 피여서 그런지 김정일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때 강사가 그이께 황해북도에서 자원해온 형제들이 이곳 기후풍토에 적응시켜 꽃을 피웠다고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런가고 하시며 어떤 동무들인가고 물으시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에 피여난 김정일화는 군사복무를 마친 한 제대군인이 추천된 대학도 마다하고 네 동생과 함께 이곳에 와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꽃이였다. 김정일화를 백두산밀영에서 재배하기 위하여 보다 지대가 낮은 리명수와 진창에서 시험재배한 다음 밀영에 옮겨 순화시키는 시험을 거듭한 그들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그들의 소행이 참 기특하다고, 그들이 백두산밀영에 김정일화를 피운것만 보아도 우리 인민들이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이날 백두산밀영고향집 뜨락에 피여난 김정일화를 보고 또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깊은 감동을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김정일화에 대한 재배기술을 완성하고 보급을 잘하여 온 세상 그 어디에나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나게 하여야 합니다. 나는 김정일동지를 따르고 받드는 백두산밀영동무들의 마음처럼 이 꽃이 계속 활짝 피여있기를 바랍니다. …

온 세상 그 어디에나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나도록 하여 조국과 혁명앞에 쌓으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김정일화와도 같이 꽃펴나고 빛을 뿌리도록 하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20여년전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제대군인인 김정북동무는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유훈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북부고산지대에서의 김정일화재배에 한생을 바치는 나날에 로력영웅으로 자라나 오늘은 량강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사업하고있다. 그의 동생들도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도인 량강도에서 김일성화, 김정일화재배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는 력사의 땅에 자리잡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일군인 김정남동무도 그들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소백수마을에 피는 김정일화,

백두광명성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지구에 피는 꽃송이들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꽃 김정일화는 이르는 곳마다에 만발하여 온 나라는 거대한 화원을 이룰것이다.

본사기자

끝없이 이어지는 백두산밀영 고향집에로의 답사행군

‖ 수 필 ‖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설경

2월이면 누구나 백두산밀영고향집에로 마음 달려가군 한다.

립춘도 지났지만 눈보라가 잦을줄 모르는 여기 백두산밀영은 한창 흰눈계절이다.

강산을 쩡쩡 얼구는 혹한속에서 어버이장군님의 탄생 75돐을 맞는 백두산밀영은 올해에도 이채로운 설경을 펼치였다.

바라볼수록 황홀함을 금할수 없는 고향집설경이다.

아아한 정일봉마루에도, 소백수물소리 유정한 고향집뜨락에도 그리고 아득히 펼쳐진 천고의 밀림에도 온통 흰눈이 덮여 그야말로 장관이다.

2월은 서리꽃계절이라 하지만 고향집의 설경처럼 그렇듯 사람들의 격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것이다.

언제인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밀영의 설경을 보고 또 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밀영에 오래간만에 와보았는데 눈덮인 혁명전적지의 풍경이 참으로 볼만합니다.》

천고의 밀림속에서 백설의 운치를 한껏 보여주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이 세상 누구에게나 태어난 고향집이 있지만 천연의 설경을 봄날의 꽃바다처럼 삼고 설한풍속에서 태어난 위인이 그 어데 있었던가.

백두광명성의 탄생을 고이 지켜드린 이 력사의 집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우리 민족의 대통운이 열리였다.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의 탄생과 더불어 바로 이곳에서 백두산인생관이 력사상 처음으로 빛발쳤음을 고향집설경은 소중히 전하고있다.

어느해인가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는 백두산의 설경을 자주 그려보군 합니다, 백두산의 설경을 생각하느라면 눈보라를 헤치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휘날리는 붉은기가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고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유격대행진곡이 쾅쾅히 울려옵니다, 백두산의 설경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을 늘 가슴에 안고 혁명의 피를 끓이신 우리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가 얼마나 뜨겁게 맥박치는 교시인가.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백두산은 미래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진할줄 모르는 열정을 부어주는 원천이며 그 어떤 모진 풍파속에서도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신심과 의지를 북돋아주는 마음의 억센 기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중히 안고계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아름다운 설경.

백두밀림의 자그마한 뜨락을 나서시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는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만이 수놓을수 있는 성스러운 년대기였다.

자욱자욱 시련의 눈보라를 헤쳐야 하는 조선혁명이였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서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세기적인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주체조선을 백두산대국으로 빛내여주신 우리 장군님.

백두산밀영에 고향을 두시였기에 그이께서는 사상과 정신도, 열정과 사랑도 백두산식이며 노래와 정서도, 담력과 기상도 오직 백두산과만 어울리였다.

하나의 전략전술을 세워도 백두천지조화처럼 변화무쌍하고 군대를 통솔해도 백두산악같은 무적강군을 거느리시였으며 인민을 키워도 백두의 흰눈같이 순결한 일심통체로 만드시고 나라를 건설해도 백두성산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백두산과 더불어 흐른 우리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설경에 그대로 어려있는것이리라.

그래서 우리 인민은 백두가 세운 이 태양의 집의 설경을 보면서 아름다운 경치에 심취되기에 앞서 그토록 숭엄해지는 감정을 금치 못해하는것이리라.

그렇다. 고향집의 설경은 단순한 자연의 경치가 아니다. 그것은 백두산의 위대한 주인이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가려는 인민의 뜨거운 충정의 마음이 사시장철 변함없이 흐르는 소백수에 어리고 하늘의 정기에 미치여 펼친 백두의 장관이다.

백두산밀영고향집에 흰눈이 내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축복해주며.

본사기자 김일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경축모임, 경축공연 근로단체들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5돐을 맞으며 14일 근로단체들에서 경축모임들과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직맹, 농근맹일군들, 로동자들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직맹위원장 김정수,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장영만,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 김영희가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가 펼쳐진 민족의 대흥운이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앞날을 기약해준 세계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높은 사명감과 강철의 의지,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주체의 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력량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선군의 기치높이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천만의 가슴마다에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을 심어주시고 온 나라에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동계급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라고 하시며 직업동맹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굳건히 이어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광명성절을 앞두고 2월의 맑고 푸른 봄하늘가에 울려퍼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장엄한 불뢰성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아오신 또 하나의 민족사적대사변이라는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우리 조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 천하제일강국으로 더욱 높이 솟구쳐오를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중 앙 로 동 자 회 관 에 서 -

곽산군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안북도농근맹위원장 최광남, 곽산군 읍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박태식, 안주시 원흥협동농장 농장원 송봄순이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한평생 온 나라 포전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문제해결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농업발전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였다고 말하였다.

농근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초선에서 당의 믿음직한 옹호자, 방조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해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치시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각급 농근맹조직들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농근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오늘의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경축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2월원무곡》, 남성독창과 방창 《장군님은 우리 어버이》, 녀성5중창 《이 강산 높은 명 험한 길우에》, 민요련곡 《철령아래 사과바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며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할 행복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알곡증산성과로 받들어갈 농업근로자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재일조선인예술단 첫 공연 진행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태양의 품으로 아, 가고파》가 14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예술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만년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애족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은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남성독창 《장군님 생각》, 장새납독주 《매혹과 흥모》, 녀성독창 《아 그립습니다》를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주체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시며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재일동포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맥동치는 혼성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노래와 무용 《원수님따라 총련 앞으로》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동포예술인들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겨레의 열망을 쌍무 《하나》에 담아 잘 보여주었다.

무대에는 고음저대독주 《산천가》, 군무 《류경의 봄》 등 민족적정서와 향취가 짙은 종목들도 올라 공연분위기를 이채롭게 하였다.

위인칭송의 열기를 더해준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은 계속된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이 14일 제21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경모심에 떠받들려 위인칭송의 꽃바다를 이룬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콘캅 인타부아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이번 축전장에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동지와 라오스조선친선협회, 주조 라오스대사관의 명의로 김정일화들을 전시하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애모스 엘리샤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림시대리대사는 감상록에 아름다운 김정일화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붉게 피여있을것이다고 썼다.

이날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은 평양문화전시관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일행,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유엔개발계획,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대표부 성원들, 제21차 김정일화축전 참가자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14일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해외연고자가족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김정일장군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십니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제22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 체육경기대회 폐막

제22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 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였다.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4개 조로 나뉘여 10개 종목을 놓고 승부를 겨루었다.

남자롱구경기에서는 전력공업성, 국가해사감독국, 대성지도국, 만수대창작사팀이, 남자배구경기에서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검찰소, 대흥지도국, 조선중앙방송위원회팀이, 녀자배구경기에서는 륙해운성, 재정성, 묘향지도국, 조선혁명박물관팀이 각각 우승하였다.

철도성, 대성은행, 대흥지도국, 외국문출판사팀이 바줄당기기경기와 태권도경기에서, 체신성,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은하지도국, 과학기술전당팀이 사격경기에서 각각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번 체육경기대회에서는 국가계획위원회, 대성은행, 대흥지도국, 외국문출판사가 조별종합순위에서 각각 1위를 하였다.

폐막식이 14일 청춘거리 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되였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와 주영길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일국체육상, 관계부문, 성, 중앙기관 일군들, 선수들이 폐막식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종합순위가 발표되고 우승을 쟁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메달 등이 수여되였다.

로두철동지가 폐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위원회,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정시에 련마한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의 단결력,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당의 대중체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주조 무관단
국가선물관 참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조 무관단이 14일 국가선물관을 참관하였다.

선물관의 총서관에 들어선 무관단성원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립상을 우러러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국가선물관이 태양민족의 만년재보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백두산천출위인들께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들, 남조선인민들이 삼가 올린 선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떼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조선인민의 흠모심이 그대로 어려있는 이곳을 참관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여기에 전시된 선물들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리켜주신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헨 주억 비엣 웰남사회주의공화국대사관 무관은 감상록에 국가선물관을 참관하고 위대한 령도자들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끝없는 경모심을 잘 알게 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더욱 발전하고 부강번영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에 앞서 손님들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학생소년들에게
우리 교실문학상 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학생소년들에게 우리 교실문학상이 수여되였다.

14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된 수여모임에서는 중구역 창광고급중학교 김신아, 함흥시 회상구역 광명소학교 리현주, 금성제1중학교 최송림을 비롯한 400여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실문학상을 받았다.

이들이 창작한 동시 《태양의 미소》, 《가고싶은 고향집》, 《우리 궁전 좋아요》 등의 작품들에는 한평생 후대들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학생소년들의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져있다.

동시 《빨간별학생》, 《전선길의 돌국화》, 작문 《해님의 축복》 등의 작품들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전설들을 감동깊게 노래하고있다.

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지덕체의 통마라고 세상에 부럼없이 희망과 재능을 활짝 꽃피워가는 학생소년들의 자랑과 긍지가 동요 《빨간 통그라미》, 동시 《꿈을 담은 책가방》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 비껴있다.

서정시 《답사행군 마친 날에》, 동시 《백두산에 갈래요》 등의 작품들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백두의 행군길,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이어갈 새 세대들의 충정의 맹세를 잘 반영한것으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해님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발걸음따라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가는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들로 억세게 자라날 열의에 넘쳐있었다.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류경안과종합병원 참관

광명성절을 맞으며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14일 류경안과종합병원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류경안과종합병원이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외래병동, 안경상점 등을 돌아보았다.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38돐에 즈음하여
이란대사관 연회 마련

이란이슬람교혁명승리 38돐에 즈음하여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이 14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김영재대외경제상, 류명선, 최희철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세예드 모흐센 에마미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세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570호 주체106(2017)년 2월 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하당은하피복공장
흑령탄광 청년갱
평양맥주공장 2직장
구성남산축산전문협동농장 종합축산분장
박천군량정사업소
은파광산 굴진갱
연산염소목장
천내리세멘트공장 운수직장
신포시 풍어협동농장 제1작업반
평양철도종합대학 철도운영대학
평양미술종합대학 조각학부

3대혁명붉은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 동케블직장
평양지구석탄출집감독소
평양8월풀가공공장
평양과수농장 제6작업반
평양돼지공장 사료작업반
평양외국어대학 재직일군 및 류학생강습소
무진대청년탄광 2갱
인포탄광 3갱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
평성시 백송협동농장 제2작업반
순천시 정리협동농장 제1작업반
온산군 읍농장 남새작업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청춘원
송암동굴관리소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 1직장
구성방직공장 염색직장
동림군 보성협동농장 청년분조
은천군 관해협동농장 제10작업반
은천군 대오협동농장 제3작업반
재령군 천마협동농장 제7작업반
안악군 대추협동농장 제1작업반
해주의학대학 제2의학부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룡매도광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공무단조직장
상원군민발전소
연탄군 송족목화전문협동농장 청년작업반
회천시 전평협동농장 제2작업반
자강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국토계획설계연구소
전천군출판물보급소
판교군 지하협동농장 제2작업반
정흥화학일용품공장
김주군 백원협동농장 제6작업반
온성군 강안협동농장 제4작업반
단천광산기계공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보수직장
남포시 안석협동농장 제3작업반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단조직장
고원철길대 기공중대
문덕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571호 주체106(2017)년 2월 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다음의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한다.

룡천군 영웅양시초급중학교
정주군 농정고급중학교
김책시 김책초급중학교
정평군 신상소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영원한 태양 - 빛나는 한생

지난해 12월 로씨야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는 로씨야의 각계층 명류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5년전 너무도 뜻밖에 우리의 곁을 떠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는 회고모임이 진행되였습니다.

모임에서는 조국과 인민앞에 그리고 세계정치사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장군님의 거대한 업적들과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그이의 고귀한 한생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끝없이 울려나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탄생 75돐이 되는 2월 16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릇 한 인간이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속에서 한생을 살고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추억을 남겼을 때 사람들은 그가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그때로부터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로지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김정일장군님!

나는 오늘도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이 못 잊어 그리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우리 장군님이시라고 소리높이 웨칩니다.

올해는 민족의 위대한 령수들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 항일빨찌산녀장군이신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경사로운 민족최대의 명절 광명성절을 맞으며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미숙하게나마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이전 쏘련가맹공화국이였던 우즈베끼스딴에서 태여나 그때 당시의 모든 쏘련사람들과 같은 사상과 리념, 사고방식에 습관된 재로동포 4세대입니다.

그러다나니 당연히 그들과 마찬가지로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이 불어대는대로 조선에는 수령에 대한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존재한다고 믿고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쏘련에서 태여났으며 쏘련식으로 컸던것입니다.

2008년 8월 어느날 나는 조국의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였는데 그는 나에게 왜 아직까지 평양에 가보지 않았는가고 묻는것이였습니다.

그에 대해 나는 《조선에 가면 마음대로 다닐수도 없고 사람들도 만날수 없다는데 도대체 3~4일동안 가서 무엇을 볼수 있겠는가. 나는 사람들의 생활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일반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싶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한것은 조선에서는 《독재》와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인민들을 억누르고있는것처럼 생각되고 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도 불손하였던 나의 태도가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울러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례한 언사를 한데 대하여 전체 조국인민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날 나는 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국방문초청을 받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14일 나는 4명으로 구성된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평양에 도착하였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부터 숙소인 평양고려호텔까지 오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평양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깨끗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였지만 모든 거리들과 아스팔트도로들이 깨끗이 정리되여있었습니다.

나는 이전에 레닌그라드(현재 싼크트-뻬쩨르부르그)에서 대학공부하던 시기 4년동안 도로청소공으로 일해보아서 도시가 이 정도로 깨끗하려면 얼마만한 품을 들여야 하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체류기간 나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대하게 진행되는 경축행사들에 참가하고 여러곳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유롭게 걸어서 온 평양시를 일주하면서 많은 공공장소들을 돌아보았고 거리와 상점들에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일상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교육, 과학, 예술 등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조선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경제제재와 몇해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하여 류례없이 간고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나 조선은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민족의 존엄과 영예, 나라와 인민의 안녕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당당히 솟구쳐오른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로씨야에서 온 조선사람이라는것을 알고는 그토록 따뜻하고 친절히 대해주면서 나의 모든 질문들에 성의껏 진심으로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나에 대한 동정심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려고 왔던 내가 자기의 뿌리인 고국과 떨어져 조국인민들의 력사와 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있은것으로 하여 오히려 그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였던것입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주,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에서 온 많은 동포들은 그 고난의 행군시기 조국인민이 발휘한 강의성과 애국심에 탄복하였습니다.

이전 쏘련국방상 야조브원수는 자기의 회상록에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있는 나는 그분들을 위인들로, 조선인민의 위대한 명장, 위대한 수령들로 높이 존경한다.》고 썼습니다. 또한 조선인민의 애국심을 파쑈도이췰란드와의 전쟁에서 발휘된 쏘련인민들의 애국심과 비교하였습니다.

보건과 교육실태, 과학과 농업, 광업의 발전수준을 알면 그 나라에 대한 평가를 내릴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미 1974년부터 조선에서 세금이 없어진데 대해 모르고있었습니다. 이전 쏘련을 포함하여 유럽과 아메리카주의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감히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조국에서는 훌륭한 무상치료제도하에서 누구나 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공화국정부에서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그들에 대한 교육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었습니다.

아무리 외진마을이라도 몇명 안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일떠서 아이들은 부모들과 떨어져 기숙하면서 공부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조국에서는 버림받은 늙은이나 거지, 마약중독자나 매춘부들도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경제와 과학분야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과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있었습니다.

로씨야자연과학원 원사인 최 알렉세이동포는 처음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나라의 과학발전수준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과학발전에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는 조국의 미래는 참으로 창창하다, 인민우에 군림하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조선의 수령님들이시야말로 모두가 절대적으로 흠모하고 따받으로 본받아야 할분들이시라고 격찬하였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핵무기와 우주정복기술을 소유하고있는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민족도 자기 나라가 강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민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은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경모심과 신뢰심, 조선민족의 자부심이 더더욱 커만 가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이 약하여 침략자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긴 약소국의 설음에 피눈물을 쏟던 우리 민족이였고 렬강들의 희생물로 비참하게 름기우는 조국을 불안고 왜 남과 같이 크지를 못했느냐 원망속에 가슴치며 산설고 물설은 이역의 하늘아래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이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때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백두광야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타승하시여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불세출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반미대결전에서 련속 승리를 이룩하시고 핵보유의 민족사적대업을 이룩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조국방문의 날이 흘러갈수록 나는 서방의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불어대는 그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이였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에는 수령들에 대한 《개인숭배》, 《개인미신》이 없습니다.

있다면 위대한 수령님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심, 그분들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모시고 따르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령, 당, 인민의 혼연일체만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쏘련사람들이 자기 군대와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전 쏘련시기에 《인민과 군대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생활에 구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쏘련이 붕괴될 때 군대의 위상이 존경받을만 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것에 대해 상기하기조차 싫습니다.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민군대가 자기 인민과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관계를 맺고있을뿐아니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채택되였지만 그이께서 거듭 만류하시여 발표되지 못하고있다가 3년이 지나서야 공포하게 되였다고 합니다.

조국의 인민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그처럼 성대히 경축한 8일간의 체류기간 나는 텔레비죤을 통해서도 그리고 경축행사장에서도 그이를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나는 저도모르게 한 일군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이 지금 장군님께서는 공장과 농촌,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다는것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였습니다.

인민들은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며 휴식을 하고 그이께서는 그 인민을 위해 일을 하고계신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위력한 핵폭탄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조선의 위대한 일심단결의 근본핵이였습니다.

조국을 떠나기 3일전 우리는 다른 해외동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는 기회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와 관련한 기록영화를 보게 되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생전에 늘 사나이는 남한테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가르쳤으며 나는 일생토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때조차 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따로 떨어져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온 겨레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는 화면들을 보면서 나는 자신을 걷잡지 못하였습니다.

저도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였으나 문득 나 혼자만 울고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터뜨리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항일의 영웅들이 안치되여있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았습니다.

항일전의 나날 빨찌산녀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 정중히 꽃다발을 드리면서 나는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온갖 고생을 무릅쓰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친 나의 어머니와 친지들의 어머니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전체 조선민족의 위대한 어머님의 모습으로 나의 앞에 계시였습니다.

나는 한쪽으로 비켜서서 또 울었습니다.

내 심중을 리해한듯 우리와 동행하던 한 잡지사 주필이 나를 부축하며 마치 어린애를 달래듯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의 첫 조국방문나날들을 생각할 때면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조선속담과 《코를 맞대고는 얼굴을 볼수 없다. 멀리 설수록 큰것이 보인다.》고 한 로씨야의 저명한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당시 로씨야에서 조국에 나처럼 오랜 기간 체류한 동포는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그때의 조국방문은 나의 눈을 띄워주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심과 조국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안겨준 나날이였습니다.

다시말하여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숱한 현대적군사장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나라와 민족이 위대해지는것이 아니라 걸출한 수령을 모실 때라야 비로소 그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이 만방에 떨쳐질수 있다는것을 나의 이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명장으로서의 천재적재능을 지니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의 칭호를 수여받으시였습니다.

장군의 위대성과 자질은 그가 이룩한 승리적업적에 의하여 평가된다고들 합니다.

특히 총포성없는 전쟁, 인적손실이 없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세계인민들은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승리를 우리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미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수없이 이룩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조국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공격을 정의의 보복타격으로 물리치는 핵강국, 우주강국, 세계사회주의의 강력한 보루로 떨쳐주시였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하늘처럼 믿으시고 인민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의 위대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전체 조선민족뿐아니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조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새로운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노도쳐나가고있습니다.

천리마시대에 이어 새로운 만리마시대가 시작되였습니다.

지난해 세계를 들었다놓은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신화적인 대승리가 이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악랄한 책동과 사회주의조선의 《종말》에 대해 떠들고있는 미국과 일본의 전쟁사환군들의 온갖 요설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철퇴로 보기 좋게 짓뭉개버리시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워가시고 조국통일성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2016년의 서막을 열어제낀데 이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 시험발사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 9월의 핵탄두폭발시험의 성과적진행으로써 주체의 핵강국의 위용은 만방에 떨쳐졌습니다.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가 성과적으로 우주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조선의 국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습니다.

오늘날 조선의 지위와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체의 선군조선은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강국, 위성강국, 청년강국으로 눈부시게 솟아올랐습니다.

조선의 말 한마디와 움직임에 세계가 흔들리고 원쑤들의 어리석은 《붕괴론》은 풍파산되였으며 오랜 세월 조국땅을 배회한 지정학적숙명론이 지정학적우세론으로 바뀌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굽어보는 강대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나는 당당히 자부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 인민적풍모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의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세계를 주도하고계시기에 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천년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나의 심장속에 아니 온 겨레와 인류의 마음속에 언제나 영생의 모습으로 계실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5돐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김칠성

주체106(2017)년 2월 4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올리는 축전채택모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에서 올리는 축전을 채택하는 모임이 12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과 재중조선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국제김정일상수여행사에 참가할
외국손님들 도착

국제김정일상수여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 무케쉬 샤르마와 일행, 리사인 헨리 마씨코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와 일행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길성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이에 앞서 국제김정일상리사회 리사인 알렉싼드르 쁘로하노브 로씨야신문 《자브뜨라》 책임주필과 일행이 왔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일행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과 일행

로씨야신문 《자브뜨라》 책임주필과 일행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

제25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선수들 도착

【평양 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제25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에 참가할 로씨야, 카나다, 프랑스, 이딸리아선수들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벨라루씨선수들이 왔다.

미국 AP통신사 부총사장일행 귀국

이안 안토니 필립스 미국 AP통신사 부총사장과 일행이 1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리원초등학원 준공식 진행

【사리원 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사리원초등학원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였다.

사리원시 대성동지구의 넓은 면적에 특색있게 건설된 초등학원에는 교실, 소년단실, 자연실 등이 있는 4층교사와 기숙사, 체육관과 야외물놀이장, 식당을 비롯한 교육 및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며 사리원초등학원이 일떠섬으로써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씩씩하게 자라날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거점이 마련되였다.

준공식이 14일에 진행되였다.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학원 교직원, 원아들, 건설자들과 사리원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임훈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당의 세심한 손길아래 사리원초등학원이 완공되여 준공식을 하게 되는 이 시각 원아들의 친어버이가 되시여 주실수 있는 모든 사랑을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대해같은 은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들에 아동단학교부터 지어주시였으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전재고아들을 데려다 최고사령부에서 키우시고 조국땅우에 일떠선 학원들을 찾으시여서는 친부모도 다 줄수 없는 뜨거운 육친의 정을 부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과 초등, 중등학원운영을 정상화할데 대한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원아들에게 철따라 새옷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을 지켜 선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이 한점의 그늘도 없이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자라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이 공부할 학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시기 위해 사리원초등학원 배치도와 조감도를 비롯한 형성안들을 여러차례 보아주시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떨쳐나선 건설자들이 학원을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세우기 위하여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으며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있는 지원으로 초등학원완공에 기여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며 제일로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받들어 원아들을 선군조선의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초등학원의 운영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구비품과 설비들을 더욱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학원의 교직원들이 원아들의 교육교양과 생활을 친부모의 뜨거운 정과 교육자의 량심을 지니고 돌봐주며 당의 은정이 깃든 건물과 시설물, 비품들을 잘 관리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학원의 모든 학생들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열심히 공부하며 조직과 집단, 동무들을 사랑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모범학생이 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원아들과 함께 훌륭히 꾸려진 사리원초등학원을 돌아보았다.

이날 원아들이 기숙사에 입사하였다.

친부모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친어버이의 따뜻한 정이 곳곳에 넘쳐흐르는 행복의 보금자리로 기쁨의 웃음짓고 들어서는 원아들을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축하해주었다.

재중동포축하단, 대표단들 도착

광명성절을 맞으며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과 표성룡 회장단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김태룡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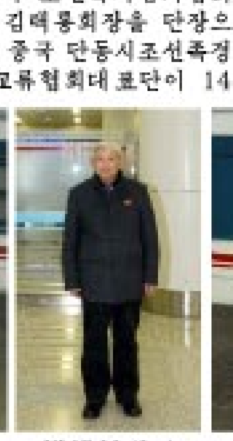
평양역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맞이하였다.

해외연고자가족들 도착

광명성절을 맞으며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채세영가족, 류룡사가족일행, 재중항일혁명렬사 박길송가족, 재중항일혁명투사 서순옥가족이 14일 비행기와 렬차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채세영가족

류룡사가족일행

중국 단동시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대표단

박길송가족

서순옥가족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대표단

제25차 광명성절경축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에 참가할 여러 나라 선수들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업을 뚜렷이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북남관계의 앞길에 드리웠던 검은구름을 밀어내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불멸의 기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부문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동족의 제의와 호소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의 길로 나올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현시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은 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방중상부터 중지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합니다.》

지금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 북남대화와 협력의 대문에는 빗장이 가로질리고 불신과 대결은 극한점에 달하였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험악한 정세까지 조성되고있다. 질식상태에 처하다 못해 전쟁의 문턱에까지 이른 현 북남관계는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이 초래한것이다.

비방중상은 동족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의식의 발로로서 북남관계파국의 근원이다.

비방중상은 그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와 불신의 표시이다. 불순한 정치적목적밑에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비방중상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 커다란 장애로 된다.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언어와 피줄이 같은 하나의 민족이 살고있다. 비록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렬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있지만 그것이 동족끼리 불신하고 적대시해야 할 리유로는 되지 않는다.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면서 비방중상을 일삼는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다. 비방중상의 지속이 몰아올것은 무력충돌과 전쟁뿐이다.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는 비방중상을 없애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발전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가 새겨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력사적으로 놓고볼 때 남조선당국이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과 적대행위에 열을 올릴 때마다 북남관계는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파국에로 줄달음쳤다.

우리 민족에게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장내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며 의지이다. 하기에 우리는 남조선에서 현《정권》이 출현한 이후에도 북남관계의 개선을 위해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였다.

우리가 지난 2014년 설명절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것을 남조선당국에 정식으로 제의한데 이어 그에 따른 일방적인 실천행동을 먼저 보여준것은 그 한 실례이다. 우리의 진정어린 노력에 의해 그해 2월에 있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는 쌍방이 호상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겠다는것을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하는 력사적인 합의가 이룩되였다.

북남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우리는 북남합의가 중요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 전례없는 통이 큰 결단을 내려 북침전쟁연습의 총포성이 울리는 속에서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성사시켰으며 아량있고 선의있는 조치를 련속 취하였다.

하지만 괴뢰당국자들은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채택된 합의에는 아랑곳없이 비방중상에 계속 기승을 부리였다. 박근혜역도는 눈만 뜨개지면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마구 중상모독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집권자가 이 꼴이니 그아래 졸개들과 보수언론들도 저저마다 악청을 내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미쳐돌아갔다. 결국 겨레에게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던 북남관계는 또다시 불신과 대결의 수렁속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북남관계의 엄혹한 현실은 박근혜역적패당의 광기어린 비방중상책동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위업에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미쳤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의 중지는 북남관계개선의 첫걸음이다.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비방중상이 시급히 중지되여야 한다. 선의의 손을 내미는 상대방을 계속 악의로 대하면서 헐뜯는다면 절대로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수 없으며 북남사이에 비방중상이 란무하는 속에서는 설사 대화와 협상, 협력과 교류가 시작되였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

상대방을 자극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온갖 비방중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대결시대의 낡은 유물인 동족에 대한 비방중상을 지체없이 끝장내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심을 품고있는 괴뢰집권세력은 여전히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의 길을 택하고있다. 괴뢰들이 민족의 지향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데 대한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와 제안을 《진정성이 없는 통일전선공세》니 뭐니 하며 헐뜯고 외세와의 《북핵압박공조》에 계속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도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최근에도 괴뢰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역도는 《전략적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대세의 추이를 분별 못하는 청맹과니에게는 눈앞에 펼쳐진 기회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괴뢰패당의 뼈속까지 절어있는 동족에 대한 적대감, 대결의식은 끊임없는 비방중상과 적대행위,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이어지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우리에 대한 악의에 찬 비방중상을 계속하고있는것이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온 겨레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서야 한다는것은 남녘민심의 일치한 주장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도전하며 대결악담질에 미쳐날뛸수록 그것이 반역《정권》에 대한 온 민족의 분노와 증오만을 폭발시킨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을 외면하는자들에게는 결코 앞날이 없으며 차례질것은 종국적파멸뿐이다.

심 철 영

핵참화를 몰아오는 범죄적망동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괴뢰역적패당의 책동이 극히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최근 괴뢰들이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투입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력대 최대규모로 벌릴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얼마전 괴뢰당국은 미국과 올해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였던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하여 벌리기로 합의하였다고 공언하였다. 한편 괴뢰들은 언론들을 동원하여 이번 연습에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호, 핵전략폭격기 《B-2》, 《B-52》를 비롯한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조선반도에 대대적으로 전개될것이 예상된다고 법석 떠들고있다. 이것이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대결하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들씌우려는 친미역적들의 용납 못할 범죄적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의 더러운 전쟁머슴군이라는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도전하면서 상전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책동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그 추태는 우리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이 해마다 벌려놓는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도발이라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이 중대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명철하게 사고하고 리성적으로 처신해야 할 시기이다. 수치스러운 민족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삼천리강토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펼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과 노력은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도 당국이 박근혜역도의 《대북정책》과 결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길에 나설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노력에 호응해나설 대신 오히려 미국과 함께 북침합동군사연습책동을 더욱 강화할 기도를 드러내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력대 최대규모로 강행하려 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날강도적인 정치경제적제재와 압박을 군사적공세에로 이행시켜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침략하기 위한 범죄적인 불장난소동이다.

내외호전광들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대북선제타격》을 기본으로 하는 《4D작전계획》과 《싸드》운용개념을 적용하려 하고있다.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방대한 무력과 최신핵타격수단들이 대량적으로 투입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악명높은 《4D작전계획》과 《싸드》운용개념에 따라 광란적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이 조선반도의 핵전쟁발발위험을 더한층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히 유린하게 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동족의 선의와 아량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세와 함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며 극도의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괴뢰들의 추악한 정체는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비극은 초보적인 현실감각도 없는 괴뢰역적패당이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도리여 동족을 해치겠다고 지랄발광하고있는 사실이다. 괴뢰들이 신주모시듯 하는 미국상전도 지금 우리의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에 덴겁하여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발편잠을 못 자고있다.

그런데 괴뢰패당은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전개된다고 으쓱해하면서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듣고 따라가는 격으로 상전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의 돌격대로 적극 나서고있다.

허재비에 불과한 미국상전을 믿고 쑥대끝에 오른 민충이처럼 분수없이 놀아대는 괴뢰들이야말로 정말 가련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핵전략자산도 괴뢰들을 멸망의 함정에서 건져주지 못할것이다.

불을 즐기는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동방의 핵강국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도발이 침략자들의 최후멸망에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리치이다.

괴뢰호전광들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이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 남 수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단말마적발악

박근혜일당이 파멸의 함정에서 헤어나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최근 괴뢰역도가 청와대에 대한 특별검사측의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헌법재판소》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문서장을 보낸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 각계는 일치하게 《초불민심에 대한 폭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전술이라고 규탄하고있다.

얼마전 특별검사측은 박근혜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괴뢰법원에서 발급한 령장을 가지고 청와대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역도는 졸개들을 내세워 청와대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보장》을 필요로 하는 《보안시설》이라느니, 《기존관례》가 어떻다느니 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이미 특별검사측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전에 아무리 증거를 없애버린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다 드러난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월 3일 2명의 특별검사보좌관이 청와대에 도착하여 압수수색령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졸개들은 그들을 청와대에 들여놓지 않았다.

특별검사의 청와대압수수색이 이렇게 실패하게 되자 남조선 각계에서 박근혜역도의 처사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청와대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라는 특급범죄가 발생한 현장이기때문에 반드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주장이다. 남조선의 법률전문가들도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은 전례가 없는 특대형범죄사건이기때문에 《기존관례》를 따를수 없다고 하면서 《국정》롱락범죄에 특별검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까지 저지른 박근혜를 《공무집행방해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만약 청와대에 불이 나도 《보안》을 운운하며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겠는가고 하면서 괴뢰역도를 비난조소하였다.

특별검사측의 청와대압수수색을 가로막은 박근혜역도의 망동이 만천하에 드러난 자기의 특대형죄악을 어떻게 하나 감추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필사적몸부림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역도가 같은 날 괴뢰헌법재판소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전면부인하는 《의견서》라는 문서장을 제출한것도 마찬가지이다.

괴뢰역도는 《의견서》에서 최순실의 인사개입문제에 대해 《몰랐다.》느니, 《최씨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다느니 하는 등의 황당무계한 잡소리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세월》호 7시간문제에 대해서는 《할바를 다했다.》고 나발질하면서 이미 전에 제공한 자료를 보라고 너덜거리였다. 박근혜역도는 이렇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문서장을 괴뢰헌법재판소에 또다시 내민것으로써 탄핵심판에 복잡성을 조성하고 시간을 끌어 살구멍을 열어보려고 꾀하였다.

괴뢰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을 지연시켜 저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면서 보수세력을 긁어모아 위기를 모면하자는것이 박근혜패당의 술책이다.

현실적으로 괴뢰보수패거리들은 지금의 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한 흉악한 각본을 짜놓고 그 실행에 적극 나서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그 각본은 《특별검사와 탄핵심판에 맞선 시간끌기, 탄핵기각, 보수의 재정비, 〈대통령〉선거》 등의 내용으로 되여있다. 보다싶이 박근혜역도는 지금 괴뢰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고 권력복귀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다.

괴뢰역도의 이런 뻔뻔스러운 망동을 보고만 있을수 없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한겨울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초불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의 요구는 박근혜즉각탄핵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반드시 실행할것과 《헌법재판소》가 2월안으로 무조건 탄핵결정을 내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만일 2월중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지역에서 대규모적인 항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한편 남조선 각계는 야당세력이 《대통령》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정파적리익을 추구할것이 아니라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서로의 공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하고있다.

박근혜역도와 그 졸개들이 탄핵을 모면하고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하려고 발악해도 소용이 없다. 박근혜역적패당의 종국적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배격당하는 《국정력사교과서》

얼마전 괴뢰교육부가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것을 공개하였다. 이미 《국정력사교과서》 검토본을 들고나왔다가 인민들로부터 된매를 얻어맞은 괴뢰교육부패거리들은 《민심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느니, 《수정보충할것》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수작을 늘어놓은바 있다. 그런데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이라는것은 남조선 각계가 예견했던바대로 온통 《유신》독재자 박정희역도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유신》독재자의 피비린 파쑈폭압통치와 친일매국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은 아예 삭제해버리거나 언급을 극력 줄이였으며 친일파라는 표현은 《친일인사》와 같은 모호한 표현들로 바꾸었다. 지어 그 무슨 《새마을운동》이니 뭐니 하며 《유신》독재자의 치적을 광고하기 위한 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삽입하였다.

반면에 검토본에 있던 《전쟁터의 일본군위안부》라는 제목의 사진과 설명문을 최종본에서 통채로 삭제하였을뿐아니라 광주인민봉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시 살륙작전에 투입되였던 《계엄군》이라는 용어와 관련사진을 빼버렸다.

괴뢰집권세력이 력사를 파렴치하게 외곡하며 박정희역도를 극구 추어올리는 이런 불순한 교과서를 꾸며낸데 대해 남조선 각계는 강하게 반발해나서고있다. 교육계는 물론 야당들과 시민단체인사들은 괴뢰당국이 내놓은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을 《친일, 독재옹호교과서》, 《박근혜효도교과서》로 일치하게 비난하면서 그것을 당장 폐기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 각계는 괴뢰국회에서 박근혜탄핵안이 통과된것은 괴뢰역도의 반역정책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면서 인민들이 한결같이 반대규탄해온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권한대행노릇을 하는 괴뢰국무총리 황교안은 박근혜의 《주요정책기조를 견지》하겠다고 고아대면서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계속 추진시켰다. 한때 력사교과서《국정화》의 재검토가능성이니 뭐니 하며 민심을 기만하던 괴뢰교육부패거리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국정력사교과서》를 한사코 꾸며내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초불민심에 따라 괴뢰국회에서 력사교과서《국정화》의 중단과 《국정력사교과서》의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역행하는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을 조작하고야말았다. 괴뢰패당의 이런 망동이 박근혜역도의 반역정책들에 준엄한 심판을 내린 초불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력사교과서《국정화》는 박근혜역도가 애비의 《정치적명예회복》을 추구하며 들고나온것이다. 력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반대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속에 대다수의 력사학교수들과 학자들이 《국정력사교과서》집필을 거부하자 악에 받친 괴뢰역도는 극우보수분자들을 동원하여 집필진을 구성하고 제 애비를 극구 미화분식하는 방향으로 이미 있던 력사교과서들을 뜯어고치게 하였다. 박근혜에게 아부추종하는 어용사가들과 력사문외한들이 어떻게 놀아댔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지난해 5월 《국정력사교과서》집필진이 내놓은 초고는 《국사편찬위원회》라는것을 통해 박근혜역도의 입맛에 맞게 더욱 개악되였다. 그것이 바로 《국정력사교과서》 검토본이다.

괴뢰패당은 그후 그 무슨 《수정보충》이니 뭐니 하고 민심을 우롱하며 박근혜역도의 흉악한 계책이 깔린 반동적인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을 들고나옴으로써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한사코 거스르는 저들의 반역적본색을 다시금 명백히 드러냈다.

더우기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의 발표놀음에 청와대의 마수가 뻗쳐있다는 사실이다.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된데 대한 남조선 각계의 분노가 고조되는 속에 여론의 이목이 저들에게 쏠리게 되자 바빠맞은 청와대것들은 《교육부의 결정》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일》이라느니 하면서 저들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듯이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청와대패거리들이 괴뢰교육부를 계속 사촉하면서 어떻게 하나 《국정력사교과서》의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광해온 사실이 폭로되여 민심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은 《국정력사교과서》 최종본을 기어코 학교들에 내려먹일 흉심밑에 이 교과서의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들의 지위를 승격시키고 교원들에게는 많은 돈을 지불할것이라는 광고를 해대고있다.

하지만 괴뢰보수패당의 력사교과서《국정화》책동을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가증스러운 《유신》독재자를 찬미하는 《국정력사교과서》는 청와대악녀의 탄핵과 함께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혀야 한다는것이 남조선 각계의 일치한 주장이다.

박근혜역도의 탄핵을 웨치며 초불투쟁을 계속 이어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은 민심을 짓밟으며 력사교과서《국정화》놀음을 끈덕지게 벌리고있는 괴뢰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 영 국

박근혜는 특검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남조선신문이 비난

9일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해도 해도 너무하는 대통령의 특검수사방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9일로 정해졌던 특별검사조의 대면조사일정이 언론에 보도되였다는 구실로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고 비난하였다.

9일 박근혜를 조사할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그 일정이 공개되였다고 하여 합의된 조사를 거부한다는것은 리유로 될수가 없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박근혜는 지난해 11월 4일 《국정》롱락사태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림할 각오》라고 말을 하였지만 검찰중간수사결과발표직후에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구실로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까밝혔다.

박근혜는 《대통령》을 뢰물죄와 《블랙리스트》작성 등의 피의자로 본 특별검사조의 조사가 불리하기때문에 대면조사를 회피하거나 아예 무산시키려 한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박근혜의 행동은 도를 넘어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청와대는 검찰과 특별검사조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하였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사설은 수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주요피의자나 참고인들의 거짓진술을 요구한 흔적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가까스로 성사된 대면조사마저 비상식적인 핑게로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박근혜는 필요가 없는 증인까지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심판을 늦추는데 안간힘을 다하고있다.

박근혜는 더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는 자기가 임명한 특별검사조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꺼질줄 모르는 분노의 초불, 더욱 확대되고있는 반박근혜투쟁

ㄱ-7102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망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